

광양시, 시내버스 노선 일부 조정

주민 이용 분석·조정…내달 2일 시행

폐지된 34번 일부 지역 100원 택시 운영

광양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돼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여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노선개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이 가능한 일부 노선을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개편 내용을 보면 태인동 방면에 대해 종전 44회에서 13회로 감회된 88번 노선을 13회에서 18회로 5회 증회한다.

종마동 순환버스 1000번, 1001번은 길호상가 내를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12번 노선은 옥곡면 장동 마을을 경유해 운행한다. 35-1번

노선은 다압면 동동마을을 1일 2회 경유한다.

또한, 옥곡면 백암마을 32번 노선은 3회에서 4회로 1회 증회하고, 11-2번 노선은 중마터미널에서 22:00~22:40에 3회 증회 운행해 종마동에서 광양읍 방향의 막차 시간을 늦췄다.

아울러 광양읍에서 시청 방면으로 운행하는 87번의 2회차, 3회차 노선은 창덕A단지를 경유하게 된다.

옥곡에서 진월로 운행하는 34번 노선은 버스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선을 폐지하고 진월면 일부 구데, 신덕, 신기, 구동 4개 마을은 100원 택시를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현재 광양시에서 운행 중인 1001번 버스

이와 함께 일부 조정된 개편 내용을 읍면동과 SNS, 버스정보시스템, 시홈페이지 공지사항, 생활정보(교통정보)에 게시하고 버스승강장에도 운행 노선도를 제작 부착해 시민 흥보에 나선다.

정해종 교통과장은 “이번 시내

버스 일부 노선개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노선개편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불편을 겪고 있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선조정이 가능한 일부 지역의 노선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전액지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순천시에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관내 221개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14년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체계적 예방과 피해보

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순천시 관내의 221개 소 어린이집과 재원아동 8500여 명, 보육교직원 1930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다. 보장 내용은 ▶영유아 신체 피해, ▶돌연

사증후군 특약, ▶시간제보육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건물, 집기), ▶화재배상책임 특약 등이다.

2020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도 당초 계약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가입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년 어린

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구축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서도 스스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신천지 신도’ 전수 조사

나주시는 관내 신천지 신도 50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2주 간 신천지 신도와의 전화 통화를 실시, 코로나19 유증상자 조기 발견 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개인정보 및 신도 명단 유출 방지를 위해 업무 경험 많은 팀장급 직원 20여명이 배치됐으며 신천지 교회 측에서 지정한 침관인이 입회했다.

화순군, 산촌생태마을 숙박·체험시설 잠정 운영 중지



화순군은 코리나19 지역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청풍면 백운리와 백아면 노치리 산촌생태마을 2곳의 숙박·체험시설 운영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군은 코리나19의 지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산촌생태마을에서는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숙박·체험 시설을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산촌생태마을의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한 방문객에게는 개별적으로 일시 중지 사실을 사전에 알려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산촌생태마을의 숙박·체험시설 운영 중단은 코로나19 방지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과 방문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련 문의 사항은 화순군 산림산업과(061-379-3722)에 연락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걷기의 도시 영광에서 운동해요”

국내 여러 손해보험 회사에서 보험 가입자가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걷기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운동 중에서 ‘걷기’를 선택한 이유는 걷기가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하루에도 여러 번 나누어서 걸을 수도 있으므로 여러모로 효율적인 운동방법이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물무산행복숲, 우산공원, 성산공원이 있다. 또한 이쪽 공원에서 저쪽 공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13분을 넘지 않는다.

흔히 걷기를 운동으로 접근하면 한 번에 1시간 또는 한 번에 5km 걸기와 같이 몰아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걷기를 운동으로 접근하지 말

고 하루에 걷는 총량으로 가볍게 접근하면 좋다. 점심 먹고 우산공원이나 성산공원 걷기, 새벽이나 공휴일에 물무산 행복숲 숲속둘레길 걷기 등을 시도해 보면 좋다.

평지를 1시간 당 6km 전후의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5~6kcal의 에너지가 소비되며 본인의 몸무게에 5kcal 또는 6kcal를 곱하면 1시간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나온다.

영광군은 우산공원과 물무산 행복숲에 이어 성산공원에도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는 평지형 숲길을 만들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걸으면 걸을수록 건강지수는 올라가고 보험료는 내려가는 시대에 맞게 영광군을 걷기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곡성군, 웹매거진 ‘농담’ 창간호 발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소통플랫폼 기대



이번 창간호에는 곡성군 청년지원체계인 청년키움에 대한 소개가 실렸다. 청년키움 지원체계는 곡성군이 청년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구성한 각 부서 간 소통 및 협업 체계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0일 간 청춘직당 프로그램을 통해 곡성에 정착한 도시청년들의 인터뷰도 불만하다. 청년들의 눈에 비친 농촌에서의 삶과 가능성,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 웹매거진 ‘농담’이 관내외 청년들에게 곡성군 청년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곡성의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나눠줄 수 있는 매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 웹매거진 ‘농담’은 http://nongdam.kr를 방문해 만나볼 수 있다. 구독신청을 하면 웹매거진 발간 소식을 알려준다.

- ▣ 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 061)333-6832 FAX : 061)334-7701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

